



Background
최근 경상남도는 관광진흥 정책 및 지역별 민족도 문화유전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진주시는 문화예술포럼을 개최하고 학교에 학교진, 유동체형, 선안도 등 지역 관광예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진주남강유동축제의 경우 연평균 방문객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이다. 그러나 유동축제가 관광 자원을 제외한 유동체형만 유동축제를 전시 및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동체형만 단순히 소형 유동체만 만드는 활동에 그쳐 전시 또한 단조롭다. 이러한 단조로운 프로그램으로 비추어 기간 기간 유동체형만 만드는 활동은 저조하게 재방문율이 낮다. 우리는 축제의 이점을 살려 유동체형만이 더욱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공간을 바탕으로 축제를 느끼는 경험은 다른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유동체 및 유동체형만 전시 체험과 여행자를 유입하는 초월 동선과 연결된 선회 전시형태에 맞는 전시유형으로 유동을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유동체형전시관을 만들고자 한다.

Associated Festival
진주남강유동축제
국내 최초의 지방문화예술포럼으로 1949년부터 개최된 진주의 '개천예술제'인 '남강유동제'에서 '특별 행사'로 운영된다. 유동체형 전시를 펼치기. 2002년 10월 '진주남강유동축제'로 출범하였다. 남강유동제를 위한 동선은, 159년 10월 김신익 장군이 2인의 왜군을 맞아 싸울 때 진주성 밖의 지황군과 군사안으로 동쪽을 둘러싸고 함께 남강에 동쪽을 띄운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막는 군사전술과, 진주성의 병사들이 성 밖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동선수단으로도 쓰였다. 진주남강유동축제는 2000년부터는 전국 최대 축제로 발전해 2010년부터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면서, 최근기간에 최우수축제로 상받은 지역 축제가 되었다.

